

## 복을 부르는 두 개의 봉투

일본사람들이 설날을 기다리는 이유에는 두 종류의 봉투가 있는데 하나는 오토시다마부쿠로(お年玉袋)라고 불리는 세뱃돈 봉투이고 또 하나는 백화점 등의 매장에서 파는 후쿠부쿠로(福袋)임

### □ 설달 그믐달

-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연말연시 연휴가 시작되는 12월 29일부터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오소오지(大掃除, 대청소)에서부터 시작됨
  -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가정집뿐 아니라 보통 가게에서도 대청소를 함
  - 대부분의 집에서는 쓸고 닦는 단순한 일뿐 아니라 벽지나 후스마(襖, 맹장지)를 새로 바르는 번거로운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가족 모두가 합심해서 신년을 맞이함
  - 그래서 매년 12월이 되면 대청소에 쓰이는 세제나 청소도구를 선전하는 TV광고가 늘어나기도 함
- 한 해의 마지막 날은 오미소카(大晦日)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지는 않지만 오츠고모리(大晦)라는 말도 있음
  - 미소카(晦日)란 매월 말일을 뜻하고 츠고모리(晦)란 달이 숨는 날

즉 그믐을 뜻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월말을 의미함

- 일 년을 마감하는 특별한 말일을 표현하기 위해 각각의 단어에 오(大)를 붙여서 섣달 그믐날임을 가리킴
- 헤이안(平安)시대 때부터 섣달 그믐날에는 1년 동안 지은 죄로 불결해진 몸을 씻어내는 오하라이(大祓い)라는 행사가 각 지역의 신사에서 이루어짐
- 또한 하루는 전통적으로 밤에 시작되어 아침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미소카는 이미 새해의 시작과도 같은 의미를 지님
- 그래서 제야에 찾아온다는 도시키미사마(年神様)라는 신을 맞이하기 위해 밤새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풍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음
- \* 이날 밤 빨리자면 머리가 희고 주름이 생긴다는 미신적 신앙도 있음
- 또한 에도(江戸)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으로 오미소카에는 해를 넘기는 메밀국수인 도시코시소바(年越しそば)를 먹음
- 금박(金箔)을 이용하여 예술적 작품을 만드는 장인(匠人)이 훔쳐간 금박을 모으기 위해 메밀가루를 사용했다고 해서 도시코시소바를 먹다가 남기면 다음해에 금전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함
- 또한 에도(江戸)시대에 도시에 사는 상인들은 오미소카가 되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였다고 하는데, 이는 연내에 빌린 돈을 갚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음
- \*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원래 일본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3월에 결산을 하는데 12월에 반드시 결산을 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음

## □ 쇼가츠(正月)

- 우리의 설날을 뜻하는 일본의 쇼가츠(正月)는 원래 풍년을 기원하는 도시키미사마(年神様)를 맞이하는 행사로 1월을 달리 부르는 말이었음
- 지금은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를 산가니치(三箇日) 그리고 1월 7일까지를 마츠노우치(松の内)라고 부르고 이 기간 동안을 일반적으로 쇼가츠(正月)라고 함
- 고유의 지방 풍습에 따라서 하츠카 쇼가츠(二十日正月)라고 해서 1월 20일까지를 쇼가츠(正月)로 여기는 지역도 있음
- 선달그믐을 지내고 나면 정월 초하루인 1월 1일에는 하츠모우데(初詣)라고 해서 신사나 절로 참배를 감
- 초하루라기보다는 그 전날인 오미소카의 밤부터 하츠모우데의 행렬은 이어짐
- 또한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는 시간에 참배를 하기 위한 인파가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주요 사찰과 신사로 이어지는 전철은 특별히 운행시간을 연장함
- 1월 7일까지 이어지는 참배객수는 도쿄의 메이지진구(明治神宮), 가마쿠라(鎌倉)의 츠루가오카 하치만구(鶴ヶ岡八幡宮), 나고야(名古屋)의 아츠타진구(熱田神宮) 등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곳은 수백만에 이름

## □ 설날 풍습

- 일본만의 독특한 설날 풍습은 여기저기서 찾아 볼 수 있는데,

- 먼저 주택가와 거리 곳곳에서 보게 되는 가도마츠(門松)라는 소나무 장식을 들 수 있음
- 이 역시 새해에 찾아온다는 도시키미사마를 맞이하는 뜻이 있으며 장수를 뜻하는 송(松, 소나무)에 헤이안(平安)시대부터 곁들여졌다고 알려진 죽(竹, 대나무)을 섞어 만듦.
  - 가도마츠는 신이 다녀간 후인 1월 7일에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리는데, 그래서 쇼가츠(正月)를 다른 말로 마츠노우치(松の内)라고도 부르는 것임
  - 또한 시메카자리(しめ飾り)라는 금줄을 엮은 화려한 장식을 볼 수 있는데 자동차 앞에 교통안전을 표시한 시메카자리가 있는가 하면 건강, 자손번영 등을 기원하는 장식을 해서 현관이나 대문 앞에 걸어 놓기도 함
- 세상을 떠난 가족을 위해 위패 또는 영정을 모신 부츠단(仏壇, 불단) 또는 가미타나(神棚, 신단)에 둥글게 찹쌀로 만든 흰색의 가가미모치(鏡餅)를 놓아두기도 함
- 원래부터 모치(餅, 떡)는 도시키미사마의 몸으로 여겨왔으며 떡을 둥글게 만드는 이유는 원만한 가정을 상징함
  - 이렇게 놓아두어 딱딱해진 가가미모치는 가가미비라키(鏡開き)라는 날인 1월 11일에 망치 등으로 깨서 먹음
  - 굳이 여기에 열다(開)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가가미모치에 도시키미사마가 머물고 있어 신과의 인연을 끊는 표현이 될 수 있는 자르다, 쪼개다 등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임
  - 또한 가가미모치를 먹는 것을 하가타메(歯固め)라고 하는데 이것은 딱딱한 것을 먹어 치아를 건강하게 하면서 장수를 기원한다는 뜻이 담겨있음

## □ 복을 부르는 봉투

- 일본사람들이 설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에는 두 가지 종류의 봉투가 있는데, 하나는 오토시다마(お年玉)라고 불리는 세뱃돈을 담은 봉투이고 다른 하나는 새해에 백화점등의 매장에서 파는 후쿠부쿠로(福袋)임
- 새해 인사를 하는 어린이에게 돈을 정성껏 담아 건네주기 위한 종이봉투가 오토시다마부쿠로(お年玉袋)인데 엽서 크기로 각양각색의 무늬가 새겨져 있음
- 한편 백화점 등의 상점에서는 새해 첫 상품을 판다는 의미로 하츠우리(初売り)를 실시하는 데 이때 봉투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알 수 없게 봉해서 판매하는 것이 후쿠부쿠로임
- 봉투 하나에 보통 유명 백화점에서는 1만 엔 정도하며, 들어있는 물건은 그 이상의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한정 판매하는 후쿠부쿠로를 사기 위해 새해 아침 일찍부터 백화점에는 주부들의 행렬이 이어짐